

“용진읍 2020년 인구 1만”

박성일 완주군수, 연초방문서 발전전략 제시... “기반구축 연내 가시화”

박성일 완주군수가 오는 2020년까지 인구 1만 용진읍 시대를 개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성일 군수는 지난 17일 용진읍 연초방문을 통해 “용진읍은 명실상부한 완주군 행정수도”라며 “2020년 1만 용진읍 달성을 위한 복합도시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군수는 1만 용진읍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구축을 연내에 가시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 군수는 그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복합행정타운 및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군 단위 행정기관 이전 및 신설 등을 제시했다.

올 11월 착공해 오는 2019년에 준공될 복합행정타운은 행정, 주거, 공공기관, 상업, 문화체육의 기능이 어우러진 주거단지다.

무엇보다 2020년경 1674세대, 4300명이 입주할 복합행정타운은 용진읍 인구를 1만1000명까지 늘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완주교육청 등 최대 6개의 군 단위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위상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2021년까지 국제경기가 가능한 16만 규모의 테니스장, 생활체육공원



박성일 군수는 지난 17일 용진읍 연초방문을 통해 “용진읍은 명실상부한 완주군 행정수도”라며 “2020년 1만 용진읍 달성을 위한 복합도시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등의 스포츠타운이 1.2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박 군수는 “용진읍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 농업용성과 농도피어 완주를 견인하는 지역”이라며 “용진읍이 균형 소재지라는 위상에 걸맞은 외형성장은 물론,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대표적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용진읍 연초방문에서 박 군수는 주민과의 대화 외에, 서여 및 상신

경로당 방문, 오찬을 겸한 소통간담회, 민생현장방문(삼례농협 산지유통센터) 등을 실시했다.

한편 17일 용진읍을 시작으로 박성일 군수는 △21일(화) 삼례읍 △22일(수) 봉동읍 △23(목) 구이면 △24일(금) 상관면 △27일(월) 소양면 △28일(화) 이서면 등의 순서로 연초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고산 등 6개 면은 군의원 보궐선거(4월 12일)에 따라 선거 이후에 진행기로 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 반딧불청소년수련원 ‘최우수’

‘201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에서

무주군 반딧불청소년수련원이 여성가족부와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은 전국 341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무주군 반딧불청소년수련원은 △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체계,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시설 안전, △시설발전 및 활동활성화 등 5개 영역 25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4개 영역에서 전국 최우수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등을 평가한 시설 종합 안전점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유일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명성을 얻게 됐다.

반딧불청소년수련원 운영 대표

임재근 지도사는 “대한민국의 거점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여성가족부 인증 프로그램 2개를 확보하고 3개 이상의 중에 있는 만큼 올해는 조금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주군 반딧랜드 내 반딧불청소년수련원(2012. 8. 개원)은 국내공공기관 수련원 중 두 번째로 조달청에 등록됐으며, 연간 7만여 명이 찾는 최상의 수학여행·체험학습지로 각광 받고 있다.

건축 연면적 2,908.79㎡ 규모(지상 3층, 지하 1층·숙박 정원 300명)의 반딧불청소년수련원은 실내 집회장을 비롯한 강의실과 편의시설, 숙박실, 체험활동실과 체력 단련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누워서도 밤하늘의 별을 관찰할 수 있도록 지상 3층의 천정을 유리로 조성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수요자 중심 교육지원사업 추진 간담회

진안군은 지난 16~17일까지 수요자 중심의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읍 문화의 집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녀교육문제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세대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정책 수요자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가운데 첫날은 어린집·유치원·초등학교 학부모가, 17일은 중·고등학교 학부모가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적극 건의와 참신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군은 ‘민선6기 지역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에 대한 정책보고에서 정책보좌관제, 교육지원 공모사업, 해외 역사탐방, 오프캠퍼스 등 교육시책을 알리고 공감을 얻어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어르신 100세 건강 영양 프로그램’ 이달부터 운영

완주군은 지역에 70여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100세 건강 영양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2개월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100세 건강 영양 프로젝트는 농항기 동안 어르신들이 식생활 인식개선 및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내용은 어르신 식생활 실천지침, 영양 식생활 설문조사, 어르신 건강간식 만들기 체험, 세라밴드 활용 근력강화운동, 영양퀴즈풀이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건강간식 만들기 체험은 요구르트 탕 및 만들기 및 시작이다.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보건소(290-3026)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군의회 활발한 입법활동 ‘눈에 띄네’

이한승, 의회 견제기능 강화 · 이성수, 친환경농업 지원기반 마련 조례 발의

연초부터 무주군의회(의장 유승열)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눈에 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 고유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의결하는 등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에 주목받고 있다.

이한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타 지자체와 자매결연·공동행사 유치(개최)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연간 사용자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문서, 양해각서 체결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보고를 의무화했다.

이성수 의원이 제출한 「무주군 친환경



이한승 의원 이성수 의원

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도 원안가결 됐다. 이에 따라 반딧불리로 대표되는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려 무주군 관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한중 FTA 체결 등으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친환경농업의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

련돼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책자·리플릿 제작 배부

장수군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해 군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담은 책자 및 리플릿을 제작 배부했다.

또한 군청 및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등에 지진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갑작스런 재난 발생 시 경각심을 갖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기정 안전재난과장은 “군민 스스로 재난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지진에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번식용 우수혈통 말 보급사업 추진

진안군은 지난 17일 농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번식용 우수혈통 말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9월 ‘진안군 말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11일에는 임신 6~7개월 코네마라포니 5두, 웰시포니 1두 총 6두를 4농가에 보급했다.

이번에 보급된 코네마라포니, 웰시포니는 국내에 처음 도입된 아일랜드 정온종 품종으로 승용, 마차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코네마라포니는 종합미술, 마장미술, 마장경주 등 모든 종목에 우수한 품종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웰시포니는 소리에 탁월해 어린이용 조랑말로 각광 받고 있는 품종이다.

또한 지난 13일 공업업체, 말 수의사, 군 직원 합동으로 말 보급 농가를 찾아 사육 환경, 건강(임신) 상태 등을 최종 점검했으며, 말 사육 경험이 없는 농가에 사육방법,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가는 체험용 승마, 번식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에 정식 혈통등록을 추진해 우수한 품종 관리 및 순수 혈통 보전을 통해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소 개소

장수군과 K-water 금·영·섬권역본부는 지난 17일 오전 장수군의 노후화된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현대화사업소를 개소했다.

장수군은 급비와 국비를 합한 203억 원의 사업비로 전문인력과 기술을 투입해 총 164.9km(전체관로의 44%)에 달하는 누수 탐지와 복구, 노후 수도관 교체, 수도관 정비, 유량 감시체계 구축 등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수군의 사업구역 내 유수율을 51%에서 85%까지 끌어올려 건강한 수도물을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용과 수도물 생산비용을 낮춰 시설개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4-30 (7일간)